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8
2025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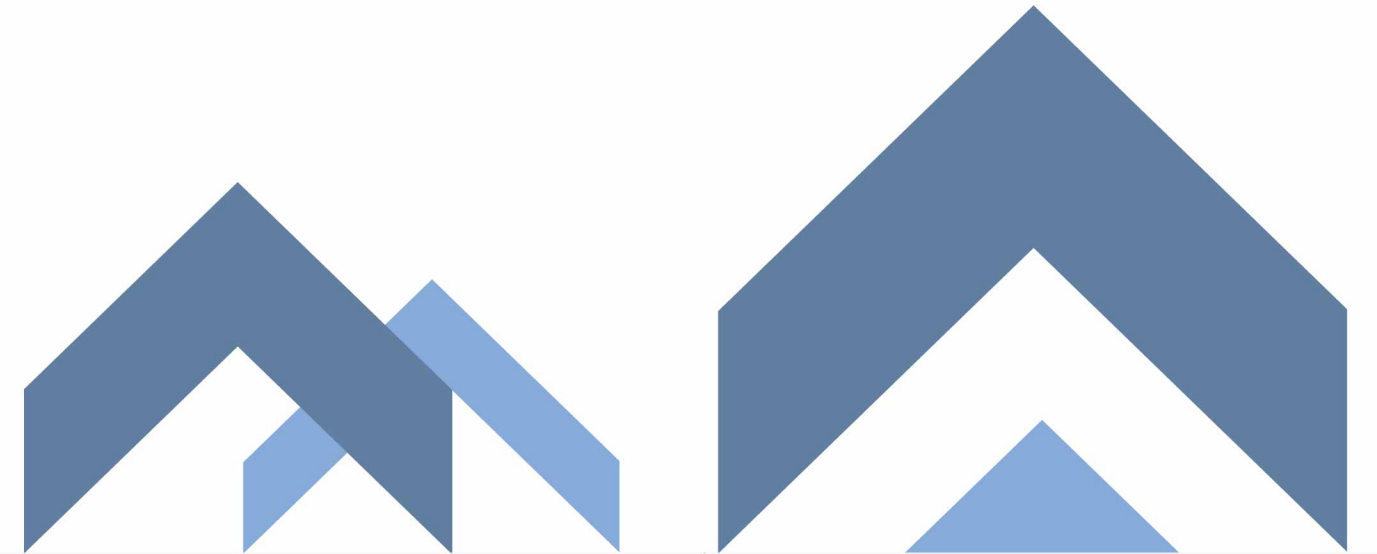


전라남도
완도 신지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섬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단 하나의 소리
시옷

Vol. 48
2025년 8월



전라남도 완도 신지도

ISLAND KEYWORD
FRIENDS
PHOTO STORY
LIFESTYLE
PEOPLE
RESOURCE
TRAVEL
NEWS&ISSUE

CONTENTS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03 1896년 2월 3일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04 해조류의 메카, 양식을 넘어 테라피로
김준 님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09 섬 청년 작가가 만난 신지도
강민구 님

LIFE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12 두 개의 다리가 만든 변화,
신지도에 흐르는 새로운 시간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4 Life Reset, 바다에서 시작된 변화
이채빈 님

18 바다 위에서 완도의 미래를 그리다
황장복 님

RESOURCE 섬, 무엇이 나고 자라나요

22 1월부터 12월까지,
완도 신지도에서 나고 자라는 해조류의 모든 것

23 알아두면 쓸모있는 K-섬 잡학사전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24 완도 신지도 투어가이드
신지도 해양치유의 시간!

구독자 이벤트 김준 박사 신간 발간 기념

29 우리는 갯벌에 산다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30 한국섬뉴스와 함께하는 이달의 주요 섬 뉴스
31 이달의 섬코디네이터 ISSUE

섬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섬센터에 언제든지 공유해주세요.

에디터 김신연

* 전화 : 061-286-6764 * 이메일 : fun1015@korea.kr

전남의 섬에서 펼쳐지는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남 섬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가고 싶은 섬 소식이 궁금하다면?

지금까지 발간된 '시옷'이 궁금하다면?



도움 주신 분

김준 섬 문화 박사 겸 작가

강민구 섬 청년 작가

이채빈 완도해양치유센터 이사장

황장복 완도요트마리나 대표

양진형 한국 섬 뉴스 대표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해양치유마케팅팀

완도군 신지면사무소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발행처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글·사진 김신연, 정태균

ISLAND KEYWORD

섬 단어 사전

1896년 2월 3일

1896년(고종 33) 2월 3일 칙령 제13호로 '전주부·나주부·남원부의 여러 섬을 나누어 완도·돌산·지도 3군을 두는 안건'이 재가를 거쳐 반포되었다. 영암·강진·해남·장흥군의 섬은 완도군, 흥양·낙안·순천·광양의 섬은 돌산군, 나주·영광·부안·만경·무안의 섬은 지도군으로 속하게 되었다.

군이 만들어질 당시의 전라도 관찰사 이도재(李道宰)[1848~1909]는 지금의 완도군 고금도에서 3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차별받는 섬 주민들의 삶을 경험했다고 한다. 흥양(현, 고흥)의 여도(呂島)로 유배된 법부대신 신기선(申箕善)[1851~1909] 역시 섬에서 지내게 되면서 섬사람의 애환과 고충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1894년 개화파 정부가 수립되자 유배에서 풀려나 서울로 간 이도재는 전라도관찰사로 부임하자마자 즉시 섬사람들은 섬사람들끼리 다스리도록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구체화하였고, 신기선과 함께 노력하여 세 지역의 군이 창설되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두 대신의 노력으로 군이 설치되었다고 알려지자 섬주민들은 고마움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1896년에 이도재와 신기선의 영세불망비를 세워 기억하고 있다.

8월 8일은 섬의 날 국가기념일이다. 섬으로만 이루어진 행정구역이 만들어진 역사적인 날짜는 2월 3일이다.

칙령 13호가 기록된 조선시대 관보

朕이 全州府羅州府南原府沿海諸島에 郡을 置호는 件을 裁可호야 頒布케 호노라.

勅令 第十三號

第一條 全州府羅州府南原府의 諸島를分호야

三個區域을 定호고 左開호는 三個郡을 置함

莞島郡 突山郡 智島郡

區域 靈巖康津海南長興四郡의 在호는 各島嶼는 莞島郡에

興陽樂安順天光陽四郡에 在호는 各島嶼는 突山郡에

羅州靈光扶安萬頃務安五郡에 在호는 各島嶼는 智島郡에 管轄케 함.



FRIENDS

섬 친구가 전하는 이야기

완도군 신지도

해조류의 메카, 양식을 넘어 테라피로

김 준 섬문화답사기 저자, 한국섬진흥원 이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 교수

지난 두 해 동안 김 양식을 하는 어민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지난해 겨울 고공행진을 하던 물김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나중에 조금 회복이 되었지만, 어민들은 크게 실망했다. 어민들은 그 전해에 누렸던 호황은 앞으로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에도 김값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1970년대에는 김 양식이 완도의 경제를 좌우했다.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나갈 때나 통상교류에 김, 우뚝가사리, 미역 등 해조류를 대표상품으로 가지고 나가기도 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수출할 공산품도 변변치 않을 때, 해조류나 수산물 1차 가공품이 외화벌이였다. 당시 완도를 비롯한 서남해안 어민들의 해조류 양식이 했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최근 해조류는 양식어업에서 박람회와 치유산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그 중심에 신지도 명사십리에 위치한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있다.

신지도는 조선시대 중죄인들이 유배된 절해고도였다. 구체적으로 종두법의 지식영, 자산어보의 정약전, 동국진체의 이광사 등 40여명이 유배생활을 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인근 소안도와 함께 섬 주민들이 활발하게 항일운동을 전개한 섬이었다. 그리고 십리에 달하는 곱고 고운 모래밭은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해수욕장이다. 어민들은 일찍 김과 툇 양식을 시작했고, 어류에 이어 전복을 많이 양식하고 있다.

Story 1. 김 양식의 메카, 완도

우리나라 해조류 총생산량은 약 175만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5%로 중국(65%), 인도네시아(23.3%)에 이어 3위에 이른다. 전라남도는 우리나라 해조류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해조류 양식을 품목별로 보면, 생산량은 다시마, 미역, 김이 각각 30% 수준으로 전체의 90%가 넘는다. 생산액은 김, 미역, 다시마 순이며, 해조류 총생산액의 70% 이상이 김 양식이 차지한다. 완도지역은 우리나라 다시마 생산량의 70%, 미역은 55%, 김은 23%, 툇은 24%, 매생이는 70%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완도지역은 우리나라 해조류 양식의 50%에 해당하는 80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 일제강점기 섬진강 하구의 초기 김 양식 실습 모습(전남 사진지, 1917)

우리나라에서 해조류 양식연구가 시작된 것은 1924년이며, 그해 7월 7일 목포 전라남도수산시험장에서 해조류 연구를 시작했다. 『전남사진지』(1917)에는 섬진강 하구에서 나뭇가지를 묶어 김 양식을 시범 양식하는 사진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 때 김 양식은 싸리나무나 대나무 가지를 다발로 묶어서 갯벌에 꽂아 양식하는 '쇠 양식'이었다. 이후 대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그물을 매는 '지주식'으로 발달했다. 최근에는 부표를 띄우고 그물을 매달아 양식하는 '부류식'으로 발달했다. 초기에는 손으로 직접 채취한 김을 세척하고 절단하고 김발에 떠서 말리는 것까지 모두 가족노동으로 해결하는 가내수공업 형태였다. 옛날 속담에 '김 하는 마을에 딸을 시집보낸 심정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은 모든 과정이 기계화되었고, 생산과 채취와 가공도 분리되었다. 도회지로 나간 자식들이 들어와 대를 이어 양식어업을 잇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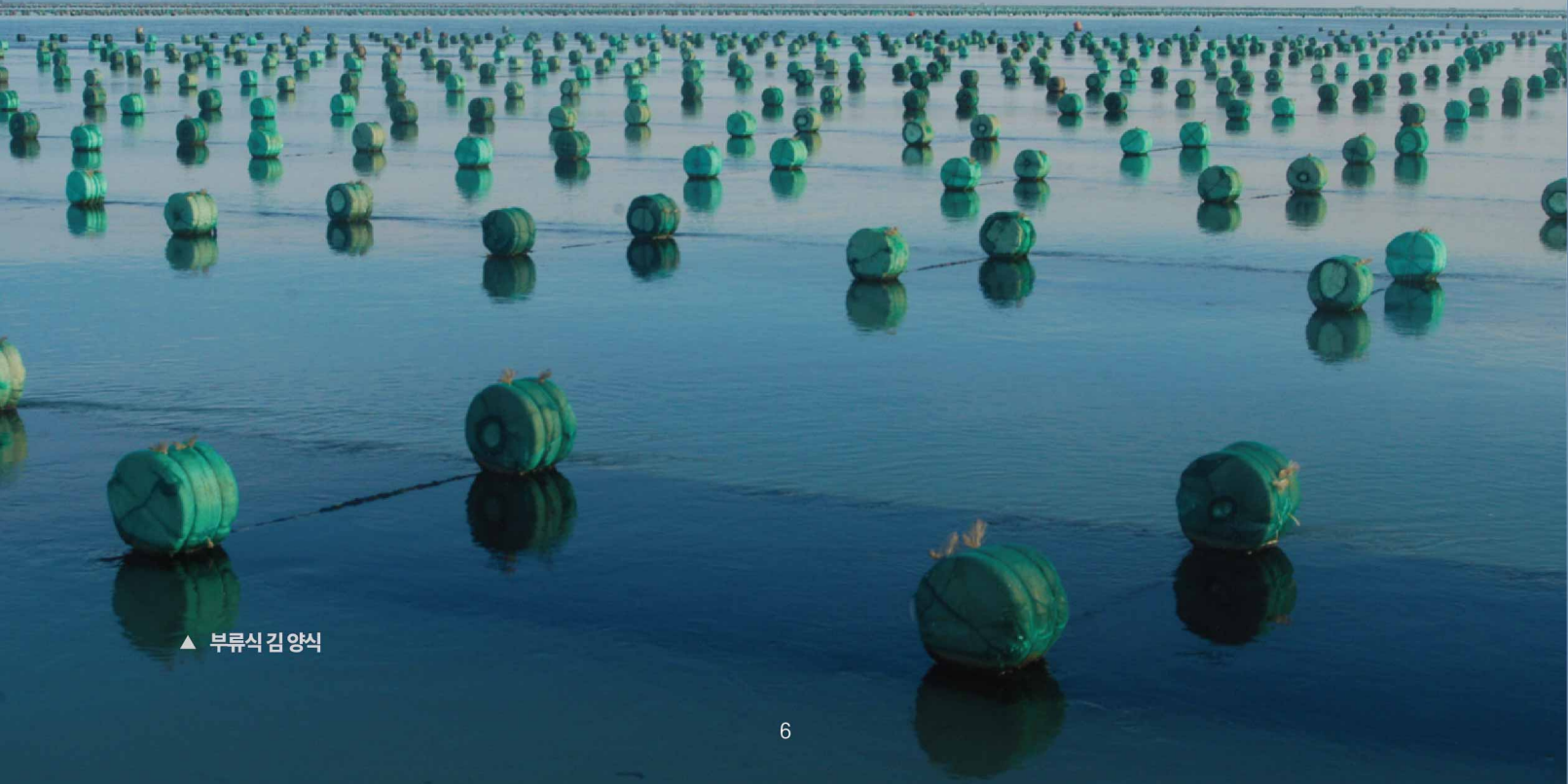
Story 2. 진화 발전하는 해조류 양식

1970년대까지 '완도김'이 대세였지만, 최근에는 지역 이름을 내건 김들이 속속 자리를 잡고 있다. 염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장흥무산김', 일찍부터 가공 김으로 명성을 선점한 '광천김', 신안의 '갯벌지주식김'이 있다. 이중 완도김(2010), 장흥김(2011), 신안김, 해남김, 광천김(이상 2014), 고흥김(2015) 등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었다.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은 2017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김 양식은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수산양식을 대표했다. 어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팔월 추석 이후 김 양식을 시작할 때면 완도 약산도에서는 정성껏 음식을 차려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 지주식 김 양식

김과 함께 우리 민족이 가장 즐겨 먹는 해조류가 미역이다. 특히 산후조리를 위해 미역국을 많이 먹었다. 양식 미역이 나오기 전에는 미역을 이고 조선팔도 어디를 팔러 가도 굶지 않았고, 쌀이며 옷이며 온갖 생필품을 구해서 돌아왔다. 아이들을 물으로 유학을 보낼 때도 하숙비와 학자금도 미역으로 보냈다. 이렇게 미역은 섬사람들의 화폐였다. 완도지역도 미역 양식을 많이 하지만, 식용보다는 양식하는 전복의 먹이로 이용한다. 해조류 중 완도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품목이 다시마다.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테라피 프로그램에 많이 이용하는 것도 다시마와 미역이다. 특히 평일도, 생일도, 약산도, 금당도 사이에 바다는 우리나라 최대 다시마 양식장이다.



▲ 부류식 김 양식



◀ 신지도 명사십리해수욕장



▲ 신지도 해수욕장 숲길

Story 3. 해조류 양식에서 해양치유산업으로

신지도에는 2005년 다리가 완공되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오갈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완도읍에서 배를 타고 오갔다. 당시 완도지역은 김 양식은 쇠퇴하고 톳 양식과 어류 양식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복 양식이 시작되었다. 신지도는 톳 양식에 이어 전복 양식이 활발하다. 신지도 섬 남쪽에는 전복 가두리 양식과 먹이인 미역 양식을 많이 하고, 고금도와 접한 북쪽은 일부 김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리가 놓이면서 신지도에 큰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여느 섬과 마찬가지로 연륙·연도교 이후 펜션과 카페가 늘었다. 여행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머무는 여행객보다는 완도읍이나 강진으로 가는 여행객이 거쳐 가는 일이 더 잦다. 여행객만 아니라 섬 주민들도 생필품을 구하거나 크고 작은 일을 볼 때, 큰 도시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긍정적인 점도 있지만 섬 안에서 소비되고 이루어지는 문화는 오히려 침체했다.



▲ 신지도 명사십리해수욕장을 걷는 사람들

또 다른 변화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지 해수욕장 중심에 '해양치유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해양 치유는 해양기후·해수·해풍·갯벌·해조류 등 해양 자원을 이용하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치유센터가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도에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해수 치유·생물 치유·기후 치유·문화 치유 등 해양 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치유 테라피 중 어민들이 생산한 해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다. 해조류와 전복 등을 활용한 생물치유다. 해조류는 미역과 다시마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조류스파테라피, 해조류머드램핑테라피, 해조류 컬러테라피 등이 있다. 또 완도에서 많이 생산되는 비파 등을 활용한 바스테라피도 생산 농민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 궁극적으로 해양치유호텔과 리조트, 레지던스, 연수시설, 골프 등을 갖춘 해양치유 단지를 마련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

과거 해조류는 구황식품, 김치, 조미, 식품첨가물 등 다양한 먹거리로 이용했다. 또 어민들 생계에서 어가소득으로, 지역경제와 미래먹거리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에서는 해양치유 산업의 자원만 아니라 NASA가 주목하는 블루카본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 완도해양치유센터 전경

PHOTO STORY

사진이 들려주는 섬 이야기

섬 청년 작가가 만난 신지도

SPECIAL GUEST

강민구 섬 청년 작가, 신안 압해도 어민



Story 1.

청년. 말 고삐를 쥐는 듯 바람과 함께 나아가다

여름 피서철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을 즐기는 여행자들의 성지이자 해양 치유를 위한 힐링 명소로 자리한 완도군 신지도. 꾸준히 인접 섬 지역과 연륙·연도교가 놓이면서 접근성도 좋아졌다.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수식어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럼에도 어느 육지와 바다에서처럼 주민들이 생업을 일구는 풍경을 간직한 곳. 웹매거진 '시옷' 현장 취재에 동행한 청년. 신지도를 찾아 안팎을 거닐며 한 손에 말 고삐를 쥐는 듯 카메라를 곁에 가까이 두었다. 푹푹 찌는 무더위 속 별 아래 걸음으로 증명하는 여정 끝에 만난 신지 명사십리 해변의 노을에 이르기까지 그를 이끈 힘은 바람에 있었다.

신지도에 스민 바람은 청년에게 어떤 목소리를 내었을까? 사진만으로는 미처 전하지 못한 짧고도 굵직한 메시지를 적고자 한다.

Story 2.

신지도 명사항에서 만난 고깃배. 낮설지 않은 마주침

고운 모래가 깔린 신지명사십리해변과 가까운 곳에 작은 항구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명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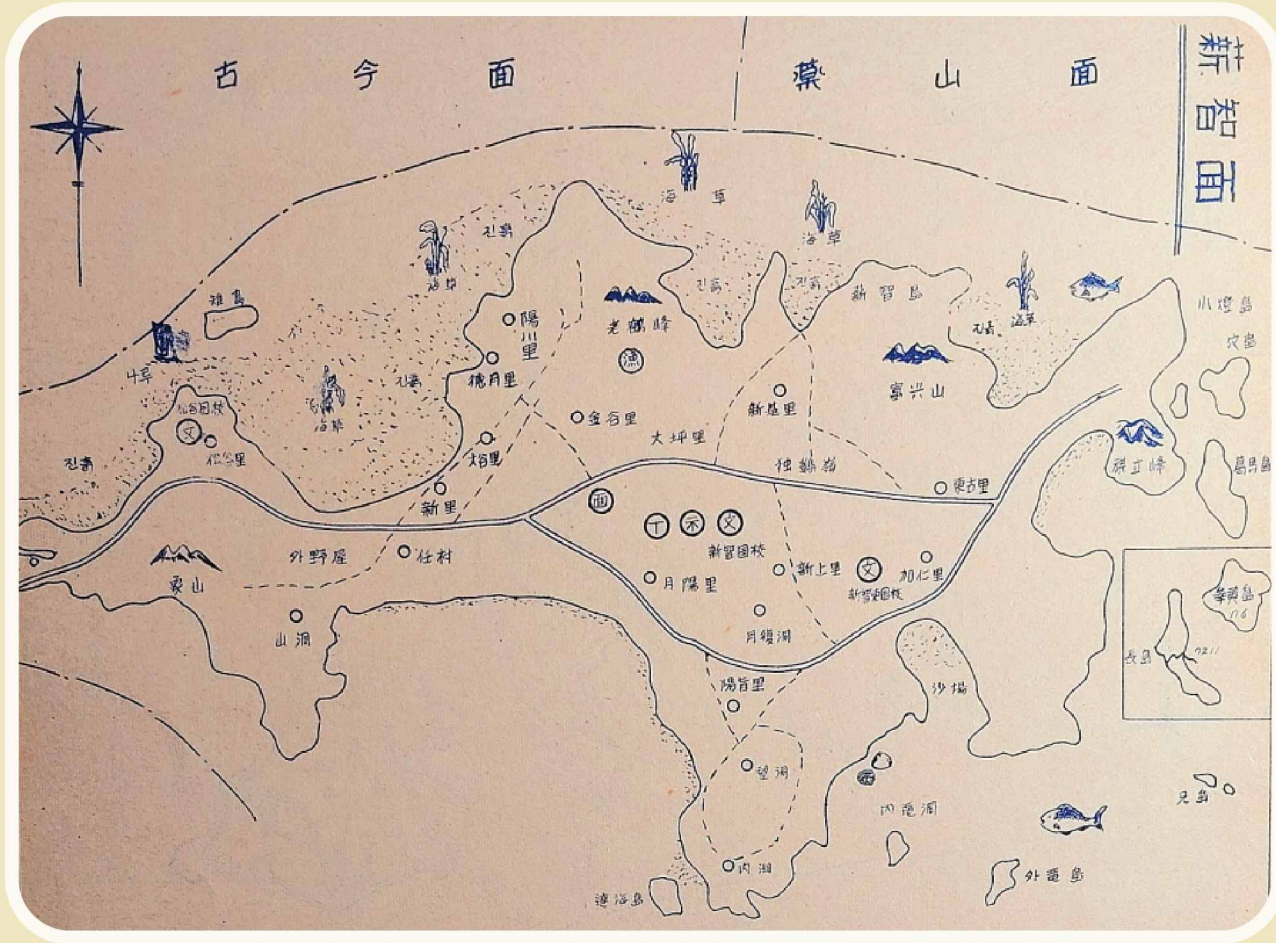
해수욕장이 지닌 명성과 인기 덕분에 항구 역시 브랜드를 갖게 되었을까 싶다.



▲ 완도군 신지면 명사항에 정박한 선박과 주변 풍경

매년 여름 거친 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항구를 향해 몰려드는 이유에서였을까? 선박 안전을 위해 남쪽을 향해 수평을 그리며 조성된 방파제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북쪽으로는 '성산(해발고도 325.7m)' 산자락이 반원형을 그리며 이곳을 보듬는 모습이었다.

하루 두 번씩 바닷물이 들고 나는 자연 현상, '물때'로 발생하는 조수간만의 차로 방파제 바깥 바다는 시시각각 거칠어지다 잠잠해지길 반복했다. 하지만 시설 안쪽은 바닷물 일부가 열게 밀려들어 정박한 고깃배를 조금씩 흔드는 정도. 마치 어미가 요람에 누워 해맑게 웃는 아기에게 손길을 내미는 모습과 같았다.



▲ 『호남약도(湖南略圖)』에 소개된 신지면(島)

Story 3. 60여년 전 그림지도로 소개된 신지도

1896년 조선 후기 고종 황제의 칙령에 의해 설군(設郡)되던 시기, 완도군은 지도군(현 신안군), 돌산군과 함께 섬으로 이루어진 도서군(島嶼郡)이었다. 국가 차원에서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했던 흐름 속에서, 완도 체도(體都)와 더불어 신지도, 약산도, 고금도, 노화도, 청산도 등 큰 섬들이 오늘날까지도 행정구역상 완도군에 속하며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65년 전라남도청에서 제작한 『호남약도』는 사진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시절, 손으로 그린 그림지도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과 기관, 생활, 자연환경을 소개한 자료다. 지도 속 신지도에는 북쪽으로 고금도와 약산도를 경계 삼고, 해안선 따라 넓게 펼쳐진 갯벌과 중앙부의 신지면 소재지, 주변 마을의 배치가 정겹게 담겨 있다. 특히 서북쪽 송곡리는 당시 여객선이 드나들던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 완도와 고금도를 잇는 중요한 나루터로 묘사되었다.

신지도라는 지명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품고 있다. 본래 이 섬은 '지도(智島)'라 불렸으나, 같은 이름을 가진 나주목 관할의 다른 섬(현 신안군 지도읍)과 혼동이 잦았다. 이에 따라 '땀나무 신(薪)' 자를 앞에 붙여 '신지도(薪智島)'라 부르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이름을 이어오고 있다. 지명이 바뀌는 과정에도 섬의 분명한 존재감이 스며있었던 셈이다.

Story 4. 신지도의 오후. 노을에 물드는 해변을 걷다

고운 모래가 쌓여 길고도 드넓은 발을 이룬 곳.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그 길이가 3.8km에 이르고 얇은 수심에 완만한 경사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울창한 해송숲이 있어 여름 무더위를 피해 해수욕과 휴식을 즐기려는 여행자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

'명사십리'라는 이름에는 이 해변만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 신지도의 명사십리는 '밝을 명(明)'이 아닌 '울 명(鳴)' 자를 쓴다. '모래가 운다'는 뜻이다. 조선시대 관료 이세보가 유배 중 이곳 모래사장에서 시를 읊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의 시는 바람에 실려 울음처럼 퍼졌고, 지금도 바닷바람 속에서 잔잔히 스며드는 듯하다. 이곳은 그렇게, 이름부터 전설이 깃든 해변이다.

2023년 11월 무렵 이곳에 '완도해양치유센터'가 들어서면서 섬과 바다가 보유한 환경 이미지를 활용한 힐링·치유 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주목받기도 했다. 올해는 유난히 무더운 별로 폭폭 찌는 날이 이어진 여름. 두 발을 감싼 신발을 내던지고 양말마저 벗고 나면 비로소 드러날 맨살. 이 바다 위 모래밭에 내딛는 첫걸음은 어떤 느낌일까? 여정 속 즐거움 덕분에 한결 가벼워진 발바닥부터 발가락까지 온전한 발자국을 찍어보자. 늦은 오후 뜨거운 태양이 지고 잔여만 남을 시간, 열기로 가득했던 해변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후라이팬처럼 달궈졌던 해변도 이제는 식었는지 따스함만이 남았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고 되돌아오다 보니 몇 걸음뿐인지 그만 잊어버렸다.

그래. 이젠 잊기로 하자. 눈앞에 아름다운 노을이 마주하였으니.



▲ 노을에 물든 신지명사십리해수욕장

LIFE STYLE

섬, 일상을 보여주세요

두 개의 다리가 만든 변화, 신지도에 흐르는 새로운 시간

Chapter 1. 다리 이전, 섬은 더 깊은 섬이었다



▲ 완도항에서 섬사람들을 싣고 신지도로 떠나는 철부선**

신지도는 완도 본섬 옆에 자리한 섬입니다. 이 짧은 거리를 바다로 건너야만 육지와 연결 될 수 있었고 주민들은 철부선 운항 시간에 맞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철부선은 하루 약 13회 운항하며 사람과 물류, 일상을 실어 나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배를 기다리는 동안 마을 어른들은 바닷가에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철부선 위에는 시장을 다녀온 손과 이웃의 안부를 전하는 마음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해상 숲과 모래사장이 어우러진 풍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철부선을 타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고, 그들을 보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엔 늘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삶은 자연의 흐름을 따라 흘렀습니다. 봄이면 다시마와 미역이 싱그럽게 자리났고 여름에는 명사십리해변의 바람 속에서 하루를 보내며 바다와 친밀해졌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해조류를 손질하며 마을길을 거닐었고 이 일상의 풍경 안에는 서로를 향한 관심과 정이 조용히 배어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모두가 이웃이자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바닷길을 오가던 사람과 물건, 정보가 자연스럽게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졌고 느리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지도는 자연과 사람, 바다가 하나의 호흡으로 어우러지는 삶의 공간이었습니다.

** 이미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민이 말하는 정책 [박상건의 섬과 등대이야기] © 신지도 | 2003.11.20

Chapter 2. 두 개의 다리가 있고 열어준 새로운 일상



▲ 장보고대교 * 이미지 출처: 리처드박(Richard Park) <https://ph20691.tistory.com/218>

신지도와 완도 본섬을 잇는 신지대교가 2005년에 개통되고, 이어 장보고대교가 2017년 말 완공되면서 신지도에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섬은 다리를 통해 육지와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주민들은 보다 자유롭게 장을 보거나 병원을 방문하며 하루를 계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도 본섬까지는 차로 약 20분 거리.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시간 활용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진료나 은행 업무처럼 꼭 필요한 일들을 계획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수업을 위해 완도를 오가며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섬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새로운 이웃이 하나둘 들어서며 마을에도 새로운 온기가 스며들고 있습니다.

길이 열린 만큼, 섬의 경제에도 활기가 더해졌습니다. 해조류와 수산물도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육지로 전달되고 유통 속도는 빨라졌으며 생산과 판매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사십리해변을 찾는 관광객의 발걸음이 늘어나며, 주민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민박, 카페, 캠핑장 같은 공간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여행자들은 드라이브를 즐기며 신지도를 찾고 주민들은 섬 안에서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통해 언제든 오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상에는 안정감이 더해졌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섬 안에서 보내는 하루도, 마을 너머로 향하는 시간도 모두 소중한 삶의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신지도는 섬의 고유함을 품은 채, 일상과 미래를 잇는 새로운 길 위에서 있습니다.

두 개의 다리는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 신지대교 * 이미지 출처: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Life Reset, 바다에서 시작된 변화

이채빈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이사장

해양치유완도



▲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완도해양치유센터의 입구

Q1.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소개해 주세요.

완도해양치유센터는 바다의 힘으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전문 치유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따뜻한 해수에 몸을 맡기는 해수풀 프로그램, 바다 채소를 활용한 해조류 테라피, 갯벌 모래찜질, 해풍 요법 등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바다의 소리, 향기, 촉감을 오롯이 느끼며, 일상에서 놓치고 있던 여유와 균형을 되찾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센터가 자리한 신지명사십리 해변은 완도의 대표적인 자연 치유 명소입니다. 길게 이어진 길게 이어진 길이

3,800m, 폭 150m에 달하는 백사장과 맑고 잔잔한 파도, 완만한 수심이 어우러져 사계절 내내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해변은 '몸을 맡게 하는 바다'로 알려져 왔습니다. 센터를 이곳에 설립한 이유도 바로 이 자연 환경 덕분입니다. 단순히 바다를 보는 곳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리듬을 되찾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운영 배경에는 완도의 청정 해양환경을 보존하며,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치유·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찾는 건강이 하나의 생활문화가 되도록,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앞으로도 '바다와 사람이 있는 치유 거점'의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Q2. 신지명사십리 해변과 센터의 만남이 주는 특별함은 무엇인가요?

신지명사십리 해변은 바다와 육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사계절 다른 빛깔로 변하는 바다, 해변을 따라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 발끝에 전해지는 고운 모래의 촉감은 그 자체로 치유입니다. 여기에 과학적으로 설계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더해지면, 단순한 휴식이 아닌 '건강 회복'이라는 명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변 바로 앞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참가자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운동하거나 호흡을 고를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동선은 방문객이 하루 동안 해양치유에 몰입하도록 돕고, 해가 질 무렵의 석양과 파도 소리는 그날의 피로를 완벽하게 풀어줍니다.



▲ 완도의 바다를 한눈에, 해양치유센터 테라스뷰

Q3. 기억에 남는 방문객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한창 직장 생활에 지쳐 있던 40대 여성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한 표정으로 센터를 찾으셨지만, 해수풀에서의 부드러운 운동과 해조류 테라피,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표정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숨을 고르게 쉬게 됐다"는 말씀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또 한 번은 서울에서 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관절 통증으로, 아버지는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는데, 아이들과 함께 모래찜질과 해변 걷기에 참여하신 후 "이렇게 온 가족이 바다에서 건강을 찾을 수 있다는게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 체험 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문객들





▲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완도형 해양치유 콘텐츠

Q4. 해양치유센터와 연계된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있나요?

완도는 25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 덕분에 다양한 섬 관광과 연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잘 알려진 보길도, 청산도 등 인근 섬을 체험한 뒤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테라피를 받는 일정은 여행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차에는 보길도의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둘러보고, 2일 차에는 해양치유센터에서 전문 테라피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구성된 관광상품도 운영 중입니다. 또한 지역기관과 협력하여 전남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직원과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치유 여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완도군민, 전남도민, 단체와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 숙박·음식점과의 연계 서비스,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의 공동 프로모션 등 지역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꾸준히 이어가며 완도 전체를 하나의 치유 관광 생태계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자연·문화·관광 자원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 숨 쉬는 통합형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완도해양치유센터 실내 전경



Q5.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앞으로 완도해양치유센터는 '365일 해양치유가 가능한 섬'이라는 비전을 실현하려 합니다. 계절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숙박·식음·관광과 연계한 장기 체류형 치유 모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완도의 해양치유 문화를 알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웰니스 트렌드와 접목해, 완도라는 지역이 '해양치유의 메카'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학술 연구, 국제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에디터 이야기

당신의 숨이 바다와 맞닿는 순간, 삶의 리듬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바다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무대였습니다. 이채빈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해양치유가 단순한 휴식이나 여행이 아니라 '삶을 재정비하는 과정'임을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신지명사십리 해변이라는 천혜의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된 프로그램들은 자연과 과학,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정교하게 어우러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한 현장의 온기와 세심한 운영 철학 속에서, 완도의 바다는 '회복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호흡하며 삶의 새로운 균형을 찾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PEOPLE

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바다 위에서 완도의 미래를 그린다

황장복 완도요트마리나대표



Q1. 간단한 자기소개와 완도에서 요트를 운영하게 된 계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현재 완도에서 요트 사업과 해양·레저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부산에서 활동하며 요트와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해양레저 경험을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바람을 읽는 법, 파도에 맞서는 방법, 그리고 바다 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배웠지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고향인 완도에 돌아와 이곳에서 해양레저 사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지도의 명사십리 해변은 바람과 파도의 조건이 요트 운항에 무척 잘 맞으며, 사계절마다 다른 빛과 표정을 지닌 풍경이 큰 매력입니다. 백사장과 푸른 숲이 바다와 맞닿은 이 풍경은 요트 위에서 바라볼 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바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즐겁게 경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모르게 깊어졌습니다.



▲ 명사십리파도에 정박한 요트 위에서 진행된 인터뷰



▲ 푸른 완도 바다 위를 항해하는 황장복 대표

Q2. 요트를 통한 바다 체험이 다른 해양스포츠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요트는 모터를 사용하지 않고 바람을 받아 천천히 나아갑니다. 그 순간 바람의 방향과 세기, 파도의 움직임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닷새의 울음소리,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물결이 부서지는 소리가 귀에 맑게 스며듭니다. 또한 요트는 속도가 빠르지 않아 바다와 주변 풍경을 여유 있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선실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갑판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멀리 보이는 섬과 해안을 바라보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완도의 바다는 계절마다 표정이 달라서, 같은 항로를 달려도 그날의 빛과 공기, 파도의 색감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런 점이 요트가 주는 특별함이며, 자연과 가까이하는 해양치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Q3. 요트 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요?

한 번의 특별한 사건보다, 매 항해마다 함께하는 분들이 보여주는 웃음과 반응이 오래 남습니다. 처음 요트를 타는 분들은 물 위에서 부드럽게 흔들리는 감각과 바람을 맞으며 나아가는 경험을 신기해 하시지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표정이 풀리고, 어느새 바다에 마음을 맡기게 됩니다. 특히 일몰 시간대의 항해는 잊기 어렵습니다. 서쪽 하늘이 주황과 분홍빛으로 물드는 순간, 바다는 그 색을 고스란히 품습니다. 해가 천천히 수평선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바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파도는 잔물결만 남습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순간마다 '이것이 바다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Q4. 요트 관광이 지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요트는 바다 위에서 섬과 해안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줍니다. 육지에서 보던 해변이 요트 위에서는 더 넓고, 더 입체적으로 보이지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여행객들의 완도에 대한 기억은 한층 더 선명해집니다. 또한 요트 관광은 지역 경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여행객들이 요트 체험을 마친 뒤 주변의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하고, 숙박을 하며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형성된 흐름이 완도의 관광 인프라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바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관광 문화가 자리 잡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Q5.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스나 포인트를 소개해 주세요.

명사십리해변에서 출발해 주변 섬들을 둘러보는 코스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요트 위에서 바라보는 명사십리의 백사장 그 뒤의 숲은 육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하고, 탁 트인 풍경을 선사합니다. 그중에서도 일몰 세일링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일정입니다. 하늘과 바다가 동시에 붉게 물드는 풍경은 매번 색감이 다르고, 그날의 날씨와 빛이 만들어낸 유일한 장면이 됩니다. 어떤 날은 구름이 노을빛을 받아 장대한 그림을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잔잔한 바다 위로 빛이 길게 드리워집니다.



▲ 든든한 동반자, 아내와 함께

Q6. 앞으로의 바람과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요?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요트를 타고 완도의 바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계절마다 특색 있는 코스를 기획하고, 날씨와 상황에 맞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과 청년들이 바다를 친근하게 느끼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요트 체험에 그치지 않고, 완도의 바다와 연계한 관광사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해안과 섬을 잇는 여행 코스, 바다 위에서 즐기는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완도의 매력을 더 깊이 알리고 싶습니다. 바다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완도에서의 시간을 오래 기억하며 다시 찾게 되길 바랍니다.

에디터 이야기

바다와 사람을 잇는 항해

황장복 대표의 요트에는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대하는 온기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는 요트를 타고 항해하는 이야기에 마냥 행복해하는 미소를 통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의 행복함을 배웠습니다. 그의 웃음과 감탄 속에서 완도의 바다가 가진 힘을 매일 확인합니다. 바람과 파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그 항해는 그 자체로 완도의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준비하는 해양레저 교육과 관광 프로그램이 완도의 바다를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 기대됩니다.



▲ 다도해를 가르며 항해하는 황장복 대표

RESOURCES

섬, 무엇이나고 자라나요

1월부터 12월까지, 완도 신지도에서 나고 자라는 해조류의 모든 것

완도 신지도, 바다 속에 숨은 해조류 보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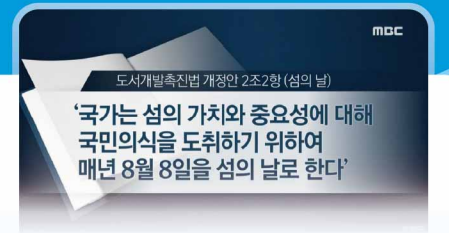
신지도 앞바다는 사계절 푸른 빛을 간직한 채, 다시마·미역·툇·모자반·김·청각 등 다양한 해조류를 키웁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해조류는 섬 주민들의 밥상에 오르고, 건해조로 가공돼 먼 곳의 식탁에도 향을 전합니다. 햇살에 말리고 바닷바람을 머금은 해조류는 신지도만의 맛과 향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1년에 단 하루, 오직 '섬'을 위한 기념일이 있다는 사실!
바로 8월 8일, 섬의 날입니다. 더 놀라운 건!
'섬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최초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
이 정도면 'K-섬', 진심 자랑할 만하죠?

'섬의 날'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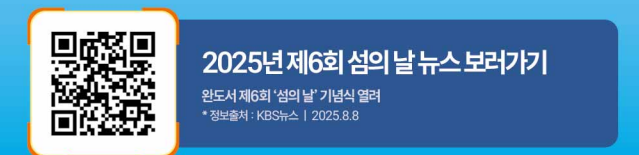
섬은 우리의 삶과 해양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죠.
'섬의 날'은 바로 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8년 2월 28일 제정된 국가 기념일로, 매년 8월 8일에는 기념행사와 섬축제가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되고 있어요!



올해 섬의 날, 어디서 열렸을까요?



벌써 여섯 번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치유의 섬' 완도에서 열려 더욱 특별했답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볼까요?



내년을
미리 예약하세요!



올해 못 오셨다고 아쉬워하긴 아직 이릅니다!
내년 8월 8일 섬의 날은 여수에서 열려요. 게다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린다는 사실!
다가오는 여름과 가을, 여수 섬 여행 어떠신가요?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완도 신지도 투어가이드

*2025년 8월 기준

기본 현황

1,831 가구	3,131 명	31.27 면적 km ²	77.5 해안선 길이 km
--------------------	-------------------	------------------------------------	--------------------------

주요 관공서 면사무소, 농협, 수협, 파출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우체국, 초·중학교

교통정보

신지도는 신지대교와 장보고대교를 통해 차량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섬입니다.

1. 버스 운행노선 : 완도읍~신지면



출 발	운행노선
광주(유스퀘어) 출발 9:10	광주(유스퀘어)-송정역-해양치유센터-완도
완도 버스터미널 17:30	완도-해양치유센터-송정역-광주(유스퀘어)

2. 택시

신지택시 061)552-8080 / 010-8833-0808



TRAVEL

섬, 그곳을 알려주세요

신지도 해양치유의 시간!

Chapter 1. 바다에서 시작되는 섬, 명사십리의 하루

신지도의 여행은 걷는 것부터 다릅니다. 차에서 내리면 눈앞에 펼쳐지는 3.8km의 광활한 백사장과 반짝이는 바다가, 어느새 발밑으로는 부드러운 모래결이 이어집니다. 신지도 명사십리해수욕장은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사람을 조용히 맞이하는 곳.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솔숲이 속삭이듯 그림자를 드리우고 멀리서 전해져 오는 잔잔한 파도가 백사장을 조용히 쓰다듬습니다. 바람은 해조류 향기를 머금고 스쳐가고 모래 위에는 잠시 멈춰 선 여행자의 발자국이 고요하게 남습니다. 이곳의 해변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걷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 바다는 말없이 당신의 긴장을 하나씩 덜어줍니다. 이러한 치유의 시간은 해변 끝자락에 자리한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치유의 섬 완도,
랜선으로 먼저 만나보기
[Full] 고향만국 - 완도, 치유의 섬
*영상정보: [EBS다큐] | 2025. 5. 28. 방송



▲ 완도해양치유센터 2층 테라스에서 내려다본 명사십리해변 전경



▲ 방문객을 맞이하는 완도해양치유센터 정문

Chapter 2. 나를 위한 회복 완도해양치유센터

2023년 11월 24일 완도 신지도 명사십리해변 인근에 국내 최초 해양치유 전문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정식 개관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이곳은 총 7,740m² 면적에 16개 테라피 프로그램을 갖추고 바다의 자원을 활용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는 딸라소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머드 랩핑, 해수 족욕, 명상풀 등 누구나 가볍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2층에서는 건강 측정 후 진행되는 맞춤형 프리미엄 테라피가 진행됩니다. 해조류 스파, 스톤 테라피, 저주파 운동, 향기·컬러 테라피 등 보다 전문적인 회복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치유는 바다에서 얻은 자연 자원을 통해 몸과 마음의 밸런스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해수 기반 수중 운동은 근력과 관절의 회복에 도움을 주고 해변 명상과 향기 테라피는 스트레스를 부드럽게 덜어내며 심리적 안정을 선사합니다. 완도는 풍부한 해조류 자원과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한 공기, 높은 음이온 발생량을 지닌 기후까지 더해져 해양치유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조건 덕분에 2023년 개관 이후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약 6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건강 여행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짧은 체험을 즐기러 온 여행자부터 재활과 힐링을 위해 머무는 장기 체류자까지 다양한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여행 속 휴식을 더 깊은 '회복'의 시간으로 이끕니다. 파도 소리와 햇살, 해조류의 향, 바다의 온기를 가득 담은 이 공간에서 진정한 심을 만나보세요.

신지도에서 보내는 시간은 당신에게 회복의 시작이 되어줄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완도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완도해양치유센터 이렇게 즐기면 완벽해요!

프로그램 추천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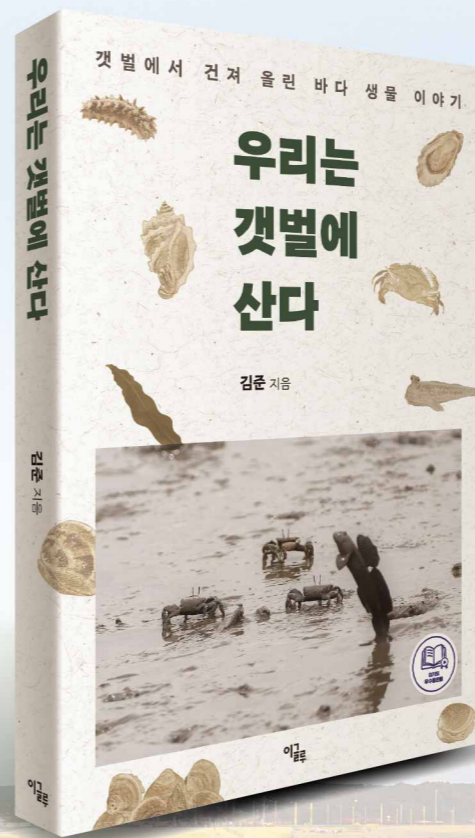
프로그램 포인트 요약

 <p>달라스풀 바다에서 노는 스파</p> <p>따뜻한 해수에 몸을 맡기면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스파 타임. 수압 마사지로 근육 긴장 완화.</p>	 <p>해조류 거품 테라피 피부에 바다 거품이 몽글몽글</p> <p>신지도 앞바다에서 자란 미역·다시마로 만든 거품 테라피. 피부는 촉촉, 기분은 뽕송.</p>	 <p>수중명상 물결과 하나 되어</p> <p>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바닷물 위 수중 스트레칭. 관절과 근육 회복에 효과적, 고령자에게 인기.</p>	 <p>스톤·머드 테라피 피부에 바다 거품이 몽글몽글</p> <p>따뜻한 돌과 해안 머드로 전신 이완. 뭉친 피로가 사르르 풀리는 진짜 힐링.</p>
---	---	---	---

이용 안내

완도해양치유센터 홈페이지에서 미리 예약하면 대기 없이 이용 가능!

항 목	내 용
위치	전남 완도군 신지도 명사십리해변 인근
운영시간	매일 09:20~18:00 (연중무휴)
주요 프로그램	달라스 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해수 족욕, 해안 명상, 스톤 테라피, 해양 머드 스파 등
요금(성인 1인기준)	기본 체험형 36,000원 / 디럭스 ~ 프리미엄 최대 125,000원
할인혜택	완도군민, 단체, 경로우대 할인 등 다양함



『우리는 갯벌에 산다』 김준 박사님 신간 발간 기념, ‘시옷’ 구독자 이벤트

시옷의 다정한 친구, 김준 박사님의 새 책이 나왔어요!

『우리는 갯벌에 산다』에는 갯벌에서 살아가는 바다생물들의 재미난 이야기와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갯벌의 비밀이 가득 들어 있어요.

“갯벌은 생물자원의 보고(寶庫)이며, 지구상에 있는 완전성을 갖춘 마지막 생태계다.”

이런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로 퀴즈 풀고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우리는 갯벌에 산다’

책소개 보러가기

이벤트 참여 방법

1. ‘시옷’ 웹매거진을 구독해주세요.
2. QR코드를 스캔한 후, 퀴즈를 풀어주세요.

추첨조건 * 이벤트 기간 : 8월 29(금)~9/14(일)
* 당첨자 발표 : 9월 16일(화) 개별 문자 안내

- ✔ 제일 먼저 정답을 맞힌 분 1명
- ✔ 제일 마지막(!)으로 오답을 제출한 분 1명

아래 QR코드로 바로 도전해보세요!
**재미도 있고, 선물도 있는
시옷 구독자 전용 이벤트**



이벤트 참여하러가기

NEWS&ISSUE

섬, 소식을 전해드려요



와 함께 보는 이달의 전남 섬 NEWS



광복 80주년 국가행사에 국토외곽 먼섬주민 '특별 초청'

• 먼섬 기초생활서비스, 새 정부 개선 기대

15일 열리는 광복 80주년 국가 행사에 국토 외곽 먼섬 거주민들도 참석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먼섬 주민들의 광복절 기념행사 초청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코멘트는 곤란하다"면서도 "국가 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새 정부의 관심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문훈미기자 | 2025. 08. 14.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섬포터즈' 발대식

• 조직위, SNS 서포터즈 18명 위촉...불업 조성·온라인 홍보 강화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11일 전남 여수시 소노캠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는 '섬'과 '서포터즈'를 결합한 '섬포터즈'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내년 11월 4일까지며 주요 행사 참여 및 콘텐츠 제작·확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섬박람회 홍보에 참여할 계획이다.

양진형기자 | 2025. 08. 12.



섬과 영화의 특별한 만남...제1회 흑산섬 영화제 성료

• 250여명의 참가자, 흑산도 주민과 함께 감동과 환호 속막내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지난 15~16일 열린 '제1회 흑산 섬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영화제에는 섬 주민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캠퍼,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250여 명이 함께하며 성황을 이뤘다.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열린 영화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신안군이 주최했다.

김준성기자 | 2025. 08. 19.

제6회 섬의 날, 섬코디네이터와 함께 떠나볼까요?

8월 7일 아침, 완도항여객선터미널. 섬코디네이터들은 전남대학교 새동백호에 오르는 순간부터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2025 올해의 섬, 완도 여서도!" 이제, 1박 2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1일차

영해기점 Live, 국경의 섬을 가다

"어서 오세요! 선실은 이쪽입니다." 안전교육을 마친 뒤 모두가 모여 해양영토 순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완도 여서도로 가자!"



▲ 안전교육을 마치고 함께 남긴 브이포즈



▲ 섬의 날, 여서도로 향하는 출정식의 열기



▲ 장보고기념관 앞에서 함께한 단체사진 한 컷



▲ 전야제를 마치고 잠을 청하려 새동백호로 가는길

완도 신지도 명사십리 인근에 자리한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바다의 치유 에너지를 느끼고, 장보고기념관에 둘러 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전야제가 열려 노래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2일차

새동백호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서도!”

섬에 발을 딛는 순간 모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영해기점 퍼포먼스에서 바다의 의미를 되새기고, 토크콘서트에서는 미래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 여서도를 배경으로 남긴 단체사진 찰카



▲ 여서도에 올려 퍼진 응원의 메시지



▲ 어획물을 살펴보는 전남대 승선원



▲ 가장 큰 참돔을 들어 올린 신안 반월박지도 장청균 섬코디네이터

조타실 투어로 배의 심장을 살펴보고, 어로작업을 참관하며 바다의 생태를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은 섬의 날 개막식, 환호 속에서 여정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완성된 약속

짧지만 깊었던 1박 2일.

섬코디네이터들과의 여정은 바다가 가진 힘과 섬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섬의 날’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특별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2025
전라남도섬발전지원센터



섬의 모든 것을
나 타 내 는
단 하나의 소리
시 웃